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국 테러보험 가입률, 증가세 지속

- 보험중개회사인 마시(Marsh)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, 대부분의 산업에서 테러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9년 테러보험 구매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.
 - 설문에 응한 기업의 61%가 테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08년 57%보다 4%p 증가한 것으로 2003년 27%를 기록한 이후 구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
 - 보험가액(Insured Value) 100만 달러 대비 보험료의 중간값(Median)은 2008년 37달러보다 감소한 25달러로 나타남.

- 산업별로는 유틸리티, 부동산 등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 전체보험료 중 금융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산업별로는 유틸리티, 부동산, 보건, 운송, 금융, 미디어 산업의 테러보험 구매율이 70%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으며, 건설, 의료, 유틸리티, 부동산 산업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남.
 - 전체보험료 중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산업과 운송산업이 각각 24%와 1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, 의료산업은 전년도 13%에서 2009년 4%로 비중이 크게 감소함.

- 마시의 부사장 벤 터커(Ben Tucker)는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미수사건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테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, 테러리스크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함.
 - 미국은 2001년 911사태 발생을 계기로 2002년 12월부터 정부가 테러보험을 지원(Backstop)하도록 하는 테러보험법(Terrorism Risk Insurance Act(TRIA))을 시행하고 있으며, 동 법안은 두 번의 기한 연장으로 2014년 12월말 종료될 계획임.
 - 터커는 특히 대도시에서 테러가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테러보험법의 시행종료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테러보험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.

(Insurance Journal, 6/24)